

여야 추경안 재처리 '전운'

한나라 표결 처리 강행 방침...민주 "이번 주 내 합의 처리" 제안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의 재추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의이래 추경안 처리에 나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이르면 17일 표결처리를 강행할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협상 시한을 넘겨놓고 협의하되 여당이 추경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국회 일정 보이기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선 추경안 처리·후 추경안 처리 무산 책임론 제기'로 가닥을 잡고 일단 추경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추경 협의를 최대한 진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17일 표결을 통해서라도 민생 예산이 대거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날 의총 직후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되 사정이 여의지 않으면 17일 처리를 해야 민생안정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해 최악의 경우, 자유선진당과의 협조 속에 예결특위에서 표결 처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주까지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게 제안했다. 조경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11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홍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을 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로 재논의해 이번주 내에 여야가 합의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늦어도 오는 19일까지 추경안을 합의처리하지는 못한다.

조 대변인은 다만 "한나라당이 지난번에 날치기를 시도했던 추경안은 무효화됐으므로 또다시 이를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다시 이를 발미로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해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 일정 거부 포함 강경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 여야가 지난 11일 ▲향후 공기업 보조금 추경편성 재발방지 ▲주거용·중소기업·자영업·농민 등에 대한 전기요금 동결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미 합의된 삭감 재원과 공기업 손실보전금 삭감 재원을 대학생 등록금, 노인 틀니, 경로당 난방비, 다자녀 가정 등 서민지원 예산으로 편성 등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예결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한다면 추경안 처리에 동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투쟁으로 추경안이 다소 지연된 점을 이유로 사퇴를 하면 막대한 개혁입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행 착오를 거울 삼아 긴장을 다시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투쟁으로 추경안이 다소 지연된 점을 이유로 사퇴를 하면 막대한 개혁입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행 착오를 거울 삼아 긴장을 다시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중진 초선처럼 뚝다

천정배·박지원 맹활약...박주선·최인기·김영진 등도 정부·여당 압박

민주당 중진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이전 국회에서 중진들은 여야 막후 교섭 등 역할을 하며 '집값' 정치를 하는데 주력했고 초선들이 최전선의 공격수로 나선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대외 공세 선봉에는 주로 중진들이 나서고 있다. 10년 만에 정권을 넘겨주고 80여석의 초라한 야당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중진이라고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당 언론전략자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4선의 천정배 의원. 그는 최대 전장으로 떠오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좌장 역할을 하며 송곳 같은 질문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통위가 관련법상 회의 공개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조목조목 밝혀내며 최시중 방통위위원장을 몰아세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인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 정보위를 오가며 노련함과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터지면서 대북전문가로서 적극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의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맞서 '되찾은 10년'의 전도사 역할도 푹푹히 하고 있다.

수년간의 공백기를 딛고 여의도로 컴백, 최고위원으로 중진 반열에 오른 박주선 의원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과 관련된 당의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다. 무분별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을 뿐 아니라 최시중 방통통신위원장, 정경진 대통령 비서실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 7명을 KBS 이사회 후임 인선 개입과 사장 후보 제명권 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당 대통령인척비리대책위원장을 맡아 검찰의 편과 수사를 견제하는 한편, 당국의 공안 정국 조성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당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또 정책위의장 출신의 최인기 의원은 예결산특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아 특유의 꼼꼼함과 성실함으로 여당과의 추경 예산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국회 가축법 개정 특위 위원장을 맡아 광범위한 행정 경험과 날카로운 논리력으로 여당과의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5선으로 교육과학수위에 동지를 튼 김영진 의원은 지난 2일 안병만 교과부장관 인사검증에서 각종 의혹을 들며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대를 댔다. 94년 우투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사발 투쟁을 벌였던 그는 '초선 같은 5선'을 모토로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지도부 간담회 "민심 업고 대안 야당 면모 일신"

민주당은 16일 추석 연휴기간 드러난 민심을 바탕으로 정국회에서 대안야당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석 민심을 들어본 결과, 여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론'을 겨냥, "과거 사업을 터무니없이 무차별적으로 무산시키려는 태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국회에서의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참여정부 때는 지나

가던 개가 죽어도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해서 다니기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좀 여유가 있었다"고 쓴웃음을 지은 뒤 "한나라당은 과거 모든 책임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웠지만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탓이라고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장상 최고위원도 "현 정부는 '강부자 경제'이기 때문에 부자는 더욱 강해지고 서민은 더욱 더 약해진다는 '강부자 대 약서민' 얘기를 듣고 마음이 슬펐다"며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다 고실업률, 고교육비 등 '고(高)' 자들이 가는게 5개나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

지를 정제 현상에 빠져 있는 소수야당으로서 자괴감도 적잖이 묻어났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나라 안팎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답답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다"며 "민주당은 발목만 잡는 정당 아니라, '대안을 내놓은 게 있느냐'고 심각하게 비판한 분도 많아 민망하고 곤혹스러운 민심 탐방이었다"고 소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의총, 홍준표 퇴진 격론 끝 유보

한나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의원 총회를 열어 홍준표 원내대표의 퇴진 여부와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일단 관련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당 지도부의 '선(先) 추경 처리, 후(後) 사대 수습' 방침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선 '유일론'에 무게를 실은 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달리 친이(친이명박) 직계 중심으로 '교체론'이 강하게 제기돼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홍 원내대표

의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투쟁으로 추경안이 다소 지연된 점을 이유로 사퇴를 하면 막대한 개혁입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행 착오를 거울 삼아 긴장을 다시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여러분의 생활이 도움이 되는...

생활안내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 '09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無等과 함께 합격의 꿈 '꼭' 이루어주세요 =

국가지급

7.9급 공무원 합격강좌

지방직

강좌직종: 행정부처원, 경찰, 교보, 보복군소기전, 정행무세원, 활공정호전지무방술산

09년 공무원 시험안내

개강 9월 16일(주) (현재예약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총) 1년 (정) 1년

합격시까지 (정기) 회원

※ 수강료가 저렴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無等』은 "꼭" 합격 할수 있다는 確信을 드립니다!!

www.mdgosl.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우문앞) 222-4560

새롭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시험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전국 수석합격자 배출 (현대환48세·최영아31세)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시책특강

9월 16일 ~ 10월 5일

2009년도 시험대비반

개강 11월 3일 첫진도 시작반 (주·야)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

주부반·성인반·국비무료 교습 재직자반

합격을 위한 전국수석합격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서주점 ☎361-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주점 ☎268-8111

▶ 화정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풍빌딩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CU한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